



4면
전주시, 태풍 대비 '만전'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균특이양사업 2026년까지 보전

행안부 지방재정전략회의

도, 전남도 등과 1단계
재정분권 문제점 제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확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태식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간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를 2년에 걸쳐 총 4.3%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며, 기초단체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확충하게 된다. 순증 규모로 따지면 2조2,000억원이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전북도 및 전남도 등은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논란이 되었던 균특이양사업 한시보전 기간(~22년)을 2026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균특이양사업을 4년간 연장해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과 회의 마무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

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어렵게 이끌어 낸 성과"라고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에 덧붙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편이 정해진 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히며, "이번에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써 시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던 송하진 도지사는 회의시작에 앞선 추사에서 "치열하고 가난한 토론 끝에 2단계 재정분권이 마련됐다. 앞으로 재정분권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꼭'

도, 한우·한돈 등 생산 브랜드 경영체 대상... 16일까지

전북도가 한우·한돈 등 축산물 생산 브랜드 경영체 대상으로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선정하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한우·한돈·육계 생산 브랜드 경영체로, 특히 특성에 상표를 등록하고, 5개 농가 이상 규모로 HACCP 적용 가공장을 이용하는 경영체다.

이와 동시에 연간 브랜드 출하 물량이 한우 1,000두, 돼지 2만두, 육계 100만수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잔류물질 위반사항이 없고 소비자 보호규정 등 브랜드 관리 규정을 운영하는 경영체가 해당 된다.

인증신청자는 브랜드 경영체가 도에 인증을 신청하고, 도는 (사)소비자시민모임에 인증 신청한 브랜드 경영체 추천을 통해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단체, 학계 등 축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 평가를 거쳐 11월 말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경영체의 인증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 수여 및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참가 특전이 주어지며, 전라북도에서는 축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의 기반 유지와 함께 소비자가 인정한 품질·위생·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도, 7개사 선정 디자인 개발 고도화 컨설팅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자인센터)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의 브랜드까지 제고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11일 2021년도 상반기 디자인 고도화 컨설팅 지원 대상 7개사를 지난 6월에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받는 기업은 ▲사회적기업인 나눔푸드, 유기농버섯, 두메산골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인 성암산이초종자씨앗, 전주한옥마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인 자유, ▲자활기업인 군산한바름 사회서비스센터 등 7개사다.

선정된 기업에는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 패키지 디자인 라벨 디자인, 홍보 포스터,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개발 등 기업에 필요한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디자인 전문회사와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 디자인 개발 고도화 컨설팅은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디자인 산출물에 대한 고도화 방안, 향후 디자인 활용방안 등을 전문가와 연계하여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수혜기업, 공급기업(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 전문가 등이 사업 현장에서 기업의 분위기, 색상,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 등 전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입체적인 지원이 가능한 디자인 전략 컨설팅으로 추진된다.

컨설팅을 통해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급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디자인 주도 혁신에 의한 수혜기업의 안정적 성과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유호상 기자

'학생중심 내년 개정교육과정, 학부모 자치로 꽃 피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 학부모단체 연합포럼 온라인 개최... 고교학점제 문제점·지원 등 제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효진, 이하 협의회)는 11일 오후 '학생중심 2022 개정교육과정, 학부모자치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으로 제1차 학부모단체 연합포럼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포럼은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교육공동체 토론회' 중 학부모 분야로서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고 6개 학부모단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국학신평화학부모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10월중 2차 포럼을 실시한다.

이날 포럼에서 3명의 학부모가 발제

를 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이윤경 대표는 "모든 학생은 특별하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박은경 대표는 '고교학점제는 폐자가 아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고교학점제 문제점 및 지원'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어 최창의 대표(경기 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영미 대표(어린이책 시민

연대), 임실희 대표(전국국학신평화학부모네트워크 울산), 김영식 고문(좋은 교사운동), 이준 학생(전관중)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은 최근의 코로나 확산 속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유튜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